

# 완도군 전복 소비 활성화 팔 걷었다

출하 가격 전년보다 46% 급락  
직거래 장터·할인 이벤트에  
전복 활용 다양한 음식도 출시



완도군이 최근 가격 하락을 겪고 있는 전복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우리나라 전복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완도군이 과잉생산된 전복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15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달 중순 기준 전복 10마리 출하 가격은 2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4만3000원)보다 46.5% 급감했다. 이는 2020~2021년 평균 출하가(3만5700원)보다 35.6% 내린 가격이다.

완도는 2535여가 3093ha에서 전복을 키우는 최대 주산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완도 어가들은 1만5552t 전복을 생산하며 6000억3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완도군은 최근 전복 과잉생산으로 인해 가격이 내려가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우려가 생기면서 소비 촉진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설 명절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판매한 완도 전복은 162t에 달한다. 인근 도시와 대기업 등과 연계해 마련한 직거래장터에서는 25t가량 전복을 팔았다.

완도군과 전남도·(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는 오는 21일까지 우체국 소핑몰에서 '완도 전복 어가 돕기 특별 할인전'을 벌인다.

할인전에서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수산대전' 할인권을 내면 최대 30% 저렴한 가격에 완도 전복을 살 수 있다.

완도군은 경기도·전남도와 협업을 해남, 신안, 진도 등지의 전복 어가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를 열 방침이다.

완도군은 빙스, 터플레이스, 제일제면소, 한국

(서울N타워) 등 외식 매장을 운영하는 CJ푸드빌과 상생 협약을 맺고 전복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선보인다.

뷔페식당인 빙스에서는 여름 한정식으로 '완도 전복 게우 파스타' '전복 누들' '전복 스프'와 안도 비파를 활용한 '시트러스 샐러드'를 내놓았다.

오는 9월20일까지는 허브버터 완도 전복·꽃등심 스테이크를 2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한다.

이달 말에는 완도 전복을 곁들인 스테이크를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 간편 식품(빙스RMR)을 CJ 소핑몰과 오픈마켓 25곳에서 만날 수 있다.

충남 금산군과는 각자의 특산물인 금산 인삼과 완도 전복을 활용한 삼계탕을 공동 개발해 온라인몰 '위메프'에서 판매하고 있다.

완도군은 대형 유통업체 기획전과 상품 개발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완도 전복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유튜브 구독자가 수백만에 달하는 '영국 남자' 등을 통해 완도 전복 바질 페스토 파스타, 전복 리조토, 전복 씨푸드 샐러드 등을 소개했다.

완도군은 앞서 북남을 맞아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기획전전을 열어 약 250t의 전복을 판매했다.

또 완도군 대표 소핑몰 '완도군이슈'와 전남도 '남도장터'에서 '복날엔 전복데이' 기획전을 열어 전복을 25% 할인 판매했다. 완도군이슈 설 명절과 가족의 달인 5월을 맞아 진행한 할인전에서는 244t이 판매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전복 생산량 증가 및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운 어가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해 군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전복을 집중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목포시, 목포해수청과 수산물 소비 촉진 협약

매주 수요일 '수(水)산물 데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목포시가 수산업계 침체를 막기 위한 소비 확대에 나선다.

목포시는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최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매주 수요일을 '수(水)산물 데이'로 지정해 구내식당과 가정에서 수산물 먹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추석과 설 명절에는 공직자들이 수산물 사주기 운동을 벌여 수산물 소비에 앞장선다. 또 모든 부

서 직원들은 수산시장과 횡집을 자주 이용할 것을 독려하기로 했다.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고 수산물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함께 벌이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위촉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수산인들의 고통을 덜어낼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협력해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화순경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실무회의

홍보 캠페인·단속 방안 등 논의

화순경찰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순경찰서는 최근 경찰서장이 추진단장이 되어 전담팀(T/F팀)을 구성,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이 자리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 시설개선, 법규위반 단속을 체계적으로 전개해나갈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교통 주무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에서 교통안전 정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에 힘쓰는 토론회도 진행했다.

박용 화순경찰서장은 "화순경찰 구성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대대적인 홍보캠페인 전개해 교통안전의식을 정립해야 한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화순을 만들고, 주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켜나가자"라고 강조했다.

/화순=조성주 기자 css@kwangju.co.kr

# 영암군, F1 경주장 '모터피아 스포츠 관광 특화사업' 박차

전남개발공사와 업무협약

2025년까지 매년 10억원 투입

F1(포틀러윈) 국제자동차경주장이 있는 영암군이 스포츠 관광 특화사업을 육성한다.

영암군과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영암 모터피아 스포츠 관광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영암군은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 공모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영암을 '스포츠 관광 중심지' 만들기에 나섰다.

영암 모터피아 사업은 F1 경주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스포츠 관광을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키운다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해마다 10억원을 투입한다.

영암군과 전남개발공사는 스포츠 관광 육성 예산을 기반으로, F1 경주장에서 각종 대회와 체험, 축제, 교육 행사를 열 방침이다.

영암 F1 경주장을 주 무대로, F1 전국장애인차이앰블대회, F1 전국마라톤대회, F1 전국유아슬론대회, 전국 대학생 포틀러 자작 자동차대회, 카트 체험, 모터스포츠 VR&4D 체험, 자동차 복합문화공간 체험, 전국 베스트 튜닝카 선발대회, 2023 모터 뮤직 페스타, 안전운전 교육 등이 열릴 계획이다.

또 이들 행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부대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과 F1 국제자동차경주장이 전남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를 거듭나도록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우승희(오른쪽) 영암군수와 장홍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최근 영암 F1 경주장을 기반으로 스포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 여수시, 17~18일 '국제 섬 포럼 인(in) 여수'

5개국 섬·해양 생태 전문가 참여

2026 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앞둔 여수시가 오는 17~18일 '국제 섬 포럼 인(in) 여수'를 연다.

'2023 국제 섬 포럼 인 여수'는 이 기간 여수 소노캄에서 열린다.

올해로 다섯 번째 여는 이번 행사는 '전환의 시대, 섬 생태계의 회복력'이라는 주제를 두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섬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여수시는 앞으로도 해마다 포럼을 열어 여수 섬 도시 위상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네덜란드, 피지, 그리스 등 5개국 섬·해양 생태 전문가가 여수를 찾는다.

이들은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깊이 있는 논의할 예정이다.

뉴질랜드 국립수자원대기연구소의 해양산성화 관측 네트워크 책임자인 킴 커리 박사는 '태평양 도서국의 해양 산성화'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섬 생태계 변화와 위기' '섬 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력' '섬 생태계와 미래' 등 3개 주제를 다루는 토론회도 이어진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섬의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섬 생태계의 정사진을 구성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